

샌드위치론 극복을 위한 발상의 전환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유병규

경제 활력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한국 경제의 요즈음 최대 화두 중 하나는 ‘샌드위치론’이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여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위기에 한국이 처해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위기감의 원인은 일본, 한국, 중국이 유사한 산업 구조 하에서 기러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동북아 지역의 안행형(雁行型) 성장 패턴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에 들어서 한국의 성장 속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앞서가는 일본을 쫓아가기는 벅찬데 중국은 너무 빠른 속도로 한국을 따라잡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중국이 모방할 수 없는 독창적 제품을 일본보다 싼 값에 만들어내는 ‘차별화 전략’이 한국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뿐만 아니라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 방책인 셈이다. 한국이 실효성 있는 차별화 대책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경제 현상에 대해 기존과 다른 현실 인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 운영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한국 경제를 현재의 입장에서만 보는 단기적이고 정태적인 관점을 버려야 한다. 기술, 세계 경제력 판도, 인구 구조 등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장기적이고 동태적인 측면에서 경제 현실을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 산업의 차별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능력보다, 급변하는 여건 변화 속에서 중국과 일본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더욱 키워야 하느냐 하는 점이기 때문이다.

한중일간의 경제 정세를 힘들게만 보는 비관적인 안목도 바뀌어야 한다.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여 있는 것을 버겁게만 여겨 낙담만 할 필요가 없다. 양국의 경제 성장을 시장 확대 요인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더 나아가 한국이 두 나라의 중심에 서서 3국간 경제 제휴를 연계하는 동북아의 핵심적 존재가 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를 부단히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이 中日의 틈바구니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한미 FTA를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다. 한미 FTA를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압착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까닭이다. 한미 FTA로 한국이 미국의 선진 기술을 흡수하여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급속히 신장시킨다면, 한일간 산업 기술 격차가 좁혀지고 중국이 흉내 낼 수 없는 제품도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이 취약한 금융 산업을 미국의 선진 기법을 받아들여 급속히 발전시켜 나간다면, 한국은 동북아 지역의 금융 중심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중국이나 일본과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주체에 대한 인식도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국가간 장벽이 사라지는 세계화 시대에 서 정부 경제 정책의 실효성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국의 산업이나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이나 환율, 금리와 같은 거시 정책의 유효성은 이제 상실돼가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은 궁극적으로 기업 자체별 생존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일본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창의력을 발휘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기업의 사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인과 노조 그리고 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숙고를 해야 한다.

차별화된 성장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은 물적 조건만큼이나 정신적 요인도 중요함을 다시금 인식해야 한다. 한국 경제가 지난 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한 것은 물적 조건이 풍족했기 때문이 아님을 새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창의성은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열정 속에서 잉태된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신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길은 획일적 평등을 강조하기보다 차별적 존재의 공존을 인정하는 풍토를 만들어내는 교육 혁신에서부터 비롯된다.